

연축발성장애의 새로운 치료방법의 시도 : 내시경하 경피적 보톡스 주입술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천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이승원* · 정혜선 · 박진규 · 고윤우 · 오천환 · 장혁순

목 적

연축발성장애는 근전도 유도하 보톡스 주입술이 표준치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가의 근전도 기기와 근전도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필요하고, 성대근의 직접적인 관찰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저자는 근전도 기기 없이 내시경으로 직접 성대근을 관찰하면서 시행한 경피적 보톡스 주입술의 안정성과 유용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방 법

2005년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내전형 연축발성장애로 내시경하 경피적 보톡스 주입술을 초 치료로 시행 받은 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술 전, 술 후 내시경소견, perceptual, acoustic analysis, 음성장애지수, visual analog scale을 적용한 음성증상과 시술의 만족도, 합병증 등을 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시술은 국소마취 하에서 내시경으로 성대를 관찰하면서 cricothyroid membrane approach, 혹은 transcartilaginous approach를 통하여 양측 thyroarytenoid muscle에 보톡스를 주입하였다.

cle에 보톡스를 주입하였다.

결 과

환자의 평균연령은 34.2 ± 13.7 세, 보톡스 주입술의 평균 유효기간은 5.0 ± 1.7 개월, 평균 주입양은 한쪽 성대당 2.3 ± 0.4 units, 시술의 만족도는 6.0 ± 2.1 점으로 중간 이상이 였다. F0, F0 standard deviation, maximal phonation time, jitter, shimmer 등은 술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이지 않았으나, Harmonic to noise ratio, visual analog scale을 적용한 음성증상, 음성장애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다. 술 후 중대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평균 13.4 ± 8.2 일의 경미한 쉰 목소리와 평균 9.4 ± 7.6 일의 경미한 사래 결림이 발생하였다.

결 론

연축발성장애 환자에서 내시경하 경피적 보톡스 주입술은 근전도기기 및 인력이 없는 여건에서 보톡스 주입이 가능한 유용한 방법으로 사료된다.